

# '예술의 향기로부터, 씬'展 개최

정읍시립미술관, 8월 15일까지 꽃·나무·빛·바다 등 자연의 향기 주제 작품 42점 전시

보랏빛 라벤더 향기 가득한 6월의 정읍에 예술의 향이 더해졌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지난 15일부터 기획전시 '예술의 향기로부터, 씬'展을 선보이고 있는 것.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와 조형 작품, 미디어,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42점을 만날 수 있다. 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자연의 향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하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칠보산 자락 10만 평 규모의 라벤더 농원에 보랏빛 꽃이 만개하면서 많은 이들이 방문함에 따라 이들에게 '향기'를 테마로 한 특별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의 이미지를 알리겠다 취지다. 실제로 꽃과 나무, 빛과 바다 등 자연의 향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나다 보면 전시의 기획 의도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지난 15일 '예술의 향기로부터, 씬'展을 개관했다.

1층 라운지에 들어서면 감창겸의 '나비와 꽃의 향연'과 노동식의 '민들레 바람을 타고 훨~훨~'이 반긴다. 산뜻하고 밝은 색감과 역동적인 표현 그리고 커다란 민들레를 잡고 바람에 몸을 맡겨 훨훨 나는 아이들을 통해 희망과 영혼의 자유로움을 전한다. 1전시실의 주제는 '계절이 시작되면 찾아오는 빛과 꽃들의 향연 속...숨(式)'. 꽃을 테마로 한 안진의(꽃의 시간), 허보리(잠미 3), 권효민(Duster Clump) 등 8명의 작가 14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시 작품의 색채와 어울리는 장미와 라벤더, 수국 등의 향기를 배치하여 후각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2전시실은 숲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향과 함께...침(休)으로 꾸며져 있다. 박상화(사유의 정원), 황선태(빛이 드는 공간), 명조(모르페우스의 향기) 등 5명의 작가 작품 19점이 위로를 건넨다. 전시실 왼쪽의 '사유의 정원'은 실제로 숲에 들어선 듯 생생하다. 맑은 새소리와 나무의 향기에 온몸을 맡기고 사유하며 휴식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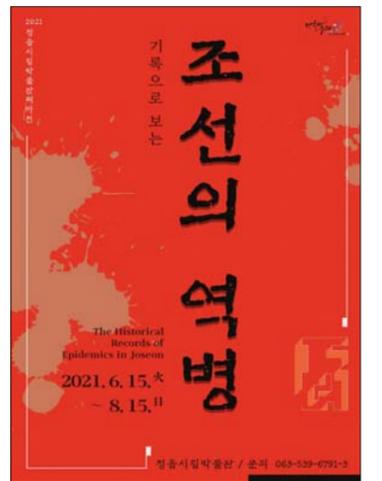
시간이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그리고 빛과 만나는 녹색 식물의 조화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빛이 드는 공간), 짙은 녹색 잎이 뿜어내는 생명의 향기가 코끝을 간질이기도(모르페우스의 향기)도 한다. 3층의 주제는 바다다. 최정은과 오창근 등 4명의 작가 9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평면화한 바다가 잔잔한 편안함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3전시실의 공간적 특징은 인터랙티브 아트공간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감상자들이 몸을 움직여 직접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어느 전시실보다 흥미롭다. 감미미 학에서는 "향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감 체험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오감 체험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감상한 후 라벤더가 만개한 구룡동 허브농원과 신록이 어우러진 내장산 등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개인 소독제 구비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정해진 동선으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또 단체이용(관람)과 전시 해설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으며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분산시키고 있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 가능하며(오후 5시 입장 마감)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립박물관, '기록으로 보는 조선의 역병' 테마전

8월 15일까지 선조들 전염병 대응 조명

정읍시립박물관이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은 테마전 '기록으로 보는 조선의 역병'을 선보인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달간 개최된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전염병에 대응했던 조선시대 선조들의 모습을 조명해 코로나19 시대의 작은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1부 '기록으로 보는 조선의 역병'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초상화, 선비들의 개인 일기, 서양인의 기록 등을 통해 조선시대 유행했던 대표적인 역병의 모습을 소개한다. 2부 '기록으로 보는 역병 극복'에서는 역병 극복을 위한 선조들의 힘겨운 사투를 유물을 통해 조명한다.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창궐하면 나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의약을 발간했고, 백성들은 종교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역병을 물리치고자 했다. 3부 '역병 극복, 그 이후'에서는 역병을 이겨낸 후 선조들의 안도와 기쁨을 느껴본다. 특히, 고종의 아들 이척(순종)이 전염병 '두



창'에서 완치되자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진하연의 모습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군산시립합창단, '창작 칸타타 구미호-하루가 천년 같은 사랑' 공연

군산시립합창단이 군산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면역력과 정서적 활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구미호와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전달한다. 시립합창단은 '창작 칸타타 구미호-하루가 천년 같은 사랑'을 오는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군산시립합창단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가슴이 따뜻해져오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김준범 작곡, 박재복 작가가 참여했고, 김영진 상임지휘자와, 세종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서곡을 비롯한 총 15곡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칸타타 줄거리는 구미호와 인간의 기적 같은 사랑을 테마로 자신을 바쳐 그녀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려는 남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창과 무용수가 콜라보로 함께해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내용이다. 합창을 기반으로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형식의 이번 창작 칸타타 <구미호> 공연은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객석 간 거리두기(50%)를 했으며,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다. 이번 공연티켓은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립합창단의 작품을 통해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연주를 통해 힘들고 우울한 순간을 잊고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공연장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감동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1950년대 생활 담은 '삼계일기' 출간

전북대학교 쌀·삼·삼·문명연구원, 지역 현대사 밝혀줄 일기 자료 발굴 분석

전북대학교 쌀·삼·삼·문명연구원(원장 이정덕)에서 일기 지역 현대사를 밝혀줄 일기 자료를 발굴해 약 1년 동안의 독해·입력 작업을 거쳐 '삼계일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은 일기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석해 해제집도 함께 펴냈다. '삼계일기'는 그 동안 한국사회의 현대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1950년대를 생활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삼계일기'에는 청년 면서기의 직장에서 업무와 그에 대한 저자의 느낌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한 혈연 공동체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농촌 마을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삼계일기'에는 행정기관과 마을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다. 이와함께 마을의 조직적 질서를 이장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면사무소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 쌀·삼·삼·문명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인 이정덕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를 비롯해 인류학, 사회학, 농업경제학,



역사학을 전공하는 10명의 연구진과 2명의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부터 제국-식민지 체제 이후 동아시아의 사회변동을 심성체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일기를 비롯한 개인기록 자료는 동아시아 민중의 삶,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인식의 세계를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연구원 관계자는 "개인기록을 통한 동아시아 민중의 심성체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2021년 11월에는 한·중·일 학자들이 모여 개인기록을 통한 비교분석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소박한 국제학술회의를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